2

헤겔이 말하기를 자연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있어 절대적인 대상인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기이며, 타자는 비본질적인 것에 그친다. 인간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관계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생각은 서로 충돌하게 된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기 때문에, 인간은 타자에게 자신의 생각(자의식)을 관철시키려 한다. 이때 다른 사람과 화자의 자의식 간에 투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투쟁 끝에 한 쪽은 패배하게 된다. 패배한 자의식은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승리한 자의식이 자리하게 된다. 정신적으로 패배한 쪽은 승리자에게 굴복하며 자신을 승리자에게 의존하는 ‘노예’가 되게 되고, 승리자는 이런 노예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게 된다. 이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 되게 되면 주인은 노예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 노예가 가져다 주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된다. 반면에 노예는 주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기 위해 스스로 노동을 무언가를 만들어 내면서, 자신을 찾아가게 된다(자의식 형성). 예를 들면 주인은 노예가 만들어준 집에 살고, 밥을 먹고, 보호를 받고 그저 그 모든 것들을 누린다. 하지만 노예는 스스로 건축을 하고 요리를 하고 주인의 보호를 위해 훈련을 하면서 자신을 키우게 되고, 이 과정속에서 노예는 자신의 의식을 주인과 동등하거나 혹은 더 높은 위치로 성장시키고, 더 이상 주인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주인에게 반역하여 둘의 상황이 역전된다. 이것이 바로 헤겔이 말하는 주인-노예 변증법(Master – Slave Dialectics)이다.

3

유사점과 차이점(헤겔의 사상을 받아들인 부분)

마르크스는 이 개념을 가져와서 주인을 ‘부르주아’로, 노예를 ‘프롤레탈리아’로 바꿨다. 이를 통해 주인과 노예간의 의식의 투쟁이라는 개념을 현실로 확장해, 부르주아와 프롤레탈리아간의 계급투쟁으로 전환했다.

4,5

헤겔은 노동을 통해서 스스로를 인식하며 자의식을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헤겔의 노동 개념이 오직 인간의 정신적 성장이라는 긍정적 부분에만 머물러 있다고 비판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노동 개념을 확장하여 노동의 부정적인 부분인 노동의 소외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 노동 소외의 개념은 여러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노동의 생산물이 노동자에게 직접 가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노동 생산물로부터의 소외와, 노동자가 스스로 원하는 노동이 아닌 부르주아의 지시에 따라서 생계를 위해서 원치 않는 노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생산과정으로부터의 소외가 있다. 또한 위 두가지의 소외를 바탕으로 다른 소외도 발생한다. 생산과정으로부터의 소외 때문에, 인간의 노동이 강제 노동이 되어 인간 본연의 노동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소외되는 유적 존재로부터의 소외가 발생하고, 생산물로부터의 소외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생산물을 갖는 부르주아와 노동을 하면서 생산물로부터 소외 당하는 노동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부르주아와 노동자 간의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는 인간으로부터의 인간의 소외가 발생한다.

마르크스는 이 모든 소외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사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사유재산 때문에 발생한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그는 사유재산을 없애고 공산주의 체제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한다.

6

포이어바흐의 유물론

포이어바흐는 이전에 관념론에서 가지고 있던 신의 개념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포이어바흐에 따르면, 신은 단지 인간의 모습을 투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신의 신성함은 인간의 죄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의 투영이며, 신의 무한성과 강력함은 인간의 유한성과 약한 모습을 벗어나길 원하는 바램이 표현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절대 정신이라 불리며 중요하게 여겨지던 신의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을 중시하게 된다. 종교로부터 소외당하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

7

종교로부터 소외를 물리치는 것에만 성공했던 포이어바흐를 넘어서, 마르크스는 역사의 발전과정에 유물론을 끌고 들어온다. 포이어바흐 이전에 유행했던 관념론에서는 절대 정신과 순수한 사상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인식한다. 즉, 이념과 사상들이 발전해 나가고 실현되는 과정을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속에서 역사는 인간의 현실적인 삶과는 멀리 떨어져서 거대한 국가의 정치적인 행위들이나, 종교의 활동만이 기록된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와 달리 물질적인 생산력에 의해서 사회의 구조나 이념, 사상 등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이 중에서도 생산력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자의 관계에 따라서,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등의 사회구조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역사는 흘러간다.